



작가 채만식.



채만식 소설 '탁류'의 배경이 된 군산은 개항과 수탈, 근대와 소외의 이미지가 중첩된 도시다. 사진은 월명공원에서 바라본 군산항과 금강 전경.

식민시대 '흔타의 물살', 지금도 굽이쳐 흐르는가

사라이 문화자산이다

<17> 작가 채만식과 군산

“이렇게 에두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 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탁류 짙어 쏠려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으로 대치(시가지) 하나가 올라왔다. 이것이 군산이라는 항구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
(소설 '탁류' 중에서)



월명공원에 자리한 채만식 문학비.

근대의 애환이 서린 도시 군산(群山). 바닷가와 면한 골목에는 과거의 흔적이 영겨 있다. 비좁은 골목 사이로 처마를 잇댄 집들과 문을 걸어 잠근 술집들이 늘어서 있다. 움푹이지 않은 장면 사이로 빛바랜 풍경이 드러워져 있다.

군산의 역사는 한마디로 근대의 역사다. 속살을 비집고 들어갈수록 시난고난한 역사의 흔적과 마주한다. 개항과 수탈, 근대와 소외. 오늘의 군산을 집약하는 말이다. 서남해안의 또 다른 도시, 목포와 닮은 듯 다른 이미지를 지닌 도시가 바로 군산이다.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서 팍팍한 세상살이의 남루함보다 질곡의 시대를 건너온 스산함이 느껴진다.

군산(群山)은 말 그대로 '산의 무리'라는 뜻이다. 그러나 군산 시가지에는 나지막한 산만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군산이라는 지명이 어디에서 왔을까. 눈치 빠른 이들이라면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본래 군산도(群山島)를 선유도라 불렀다. 고려시대에는 송나라와의 무역의 기항지였다. 조선시대에는 왜군이 자주 출몰해 이곳 군산도(선유도)에 수군진영을 설치했다. 그러던 것이 세종 때 군산진이 육구현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군산'이란 명칭까지 옮겨가게 된다. 그로 인해 선유도는 예전의 군산도라는 이름의 '고군산도(古群山群島)'로 불리게 되고, 오늘의 군산은 당시에 옮겨온 지명이 굳어진 것이다. (물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뺏다고 하면 과장이 될까.) 아무튼 군산은 태생적으로 외세의 영향과 무관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섬의 무리'라는 뜻의 군산(群山). 이 항구도시에는 금강 하류가 굽이쳐 흐른다. 정확히 말하면 서해로 빠져나가는 금강 물줄기와 연안으로 흘러드는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다. 물살이 풍부하고 교류가 빈다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 물적 토대를 갖춘 셈이다. 일제가 수탈의 본거지로 눈독을 들였던 이유이다.

채만식의 소설 '탁류'는 이 지점에서 탄생한다. '탁류(濁流)'라는 제목은 상징적이면서도 풍자적이다. 타락한 세태를 혼탁한 물살에 빗댄 것으로, 왜곡된 역사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야기는 정주사라는 집안의 몰락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작가는 군산이란 항구를 무대로 타락한 인물들의 삶을 짙게 그려낸다. 소설에는 삶의 타격을 상실한 채 부평초처럼 휩쓸려 살아가는 식민지하의 민초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작가의 시선은 '미두'(米豆·도박)에 빠져 몰락한 정 주사와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딸(초봉)에만 머물지 않는다. 당대의 시난고난한 삶을 흠뻑물이 흐르는 금강에 걸쳐 보여줌으로써, 우리 민족이 처한 현주소를 예리하게 드러낸다.

군산시 내흥동에는 백릉(白陵) 채만식 문학관이 있다. 전북 옥구 임피면에서 출생한 채만식(1902~1950)은 1924년 단편소설 '세길로'가 조선문단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1950년 타계 직전까지 소설, 희곡, 평론 등 200여 편의 작품을 남긴 만큼 열정적인 창작활동을 펼쳤다. 2001년 금강 인근에 건립된 문학관은 채만식의 문학적 흔적과 열정이 집약된 곳으로 백릉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아우를 수 있다. 이곳에는 채만식의 집필 모습 등을 볼 수 있는 전시실을 비롯 작가의 유품과 당대 발행되었던 문학잡지 등이 보관된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문학관은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지만 앞으로 펼쳐진 수수한 정원과 오른쪽으로 펼쳐진 금강의 풍광이 압권이다. 먼 바다와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문학관은 전국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군산하면 채만식을 떠올릴 정도로 사람들은 작가와 지역을 동일시하는 것 같다. 작가의 고향은 옥구군 임피면이지만 탁류가 '군산'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만식은 브랜드가 되었다. 주말이나 수학여행 철에는 하루 1000명이 다녀간다. 그러나 채만식이 원래부터 유명한 작가는 아니었다.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무렵부터다. 그의 작품에 담긴 풍자정신을 연구자나 문학 애호가들이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김삼성 군산시문화해설사는 “채만식은 문학을 통해 항일을 한 작가”라며 “당시에는 친일을하거나 침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채만식은 특유의 풍자와 해학으로 당대의 사회상을 따끔하게 질책했다”고 덧붙인다.

이곳에서는 매년 가을 채만식 문학상을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작가 초청 강연회를 연다. 정원에는 포토존과 해바라기 모형의 바람개비가 설치돼 있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문필환 군산시 담당 공무원

금강·바다 만나는 지점 물살 풍부·교류 빈번 일제 수탈·역사왜곡 풍자 '탁류' 탄생 본거지 바다 옆 채만식 문학관, 백릉 작품세계 오롯이 탁류·생가 답사코스 인기...축제 연계도 검토

은 “항후 '탁류 미니어처'와 같은 문학콘텐츠도 마련하고 군산시간 여행축제와 연계한 채만식 축제도 검토해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에는 '탁류 답사길'과 '백릉 고향 답사길'이라는 채만식 문학 답사코스도 있다. 근대문화를 탐방하고 아울러 채만식의 작품과 생가 터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다. 채만식의 호 백릉(白陵)을 땀 백릉로 가 있을 만큼 군산에서 그의 존재는 각별하다. 그뿐인가. 이곳에는 재미있는 지명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일례로 탁류의 주 무대 '재보 선창'은 선창이 재보(언청이)처럼 갈라진 물길이라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재보선창과 멀지 않은 곳에 조선총독부 지점 (구조선은행 건물)이 있다. 지금은 '군산근대건축관'으로 사용되지만 독특한 외관은 멀리서도 눈에 띈다. 인근에는 근대역사박물관, (구)군산세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근대문화를 둘러보고 탁류의 배경지 금강 언저리에 선다. 식민지시대 왜곡과 수탈의 역사를 풍자했던 백릉의 심사가 헤아려진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도도한 물살의 흐름은 여전히다. 채만식이 왜 호를 백릉이라 지었는지도 어렵פות이 짐작이 된다. 백릉은 수초 뿌리에 달린 알맹이다. 껍질을 까면 흰 물방이 나온다. 백릉은 부평초 같은 시대를 살아야 하는 지식인의 고뇌를 투영한 것은 아닐지.

/군산=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구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



채만식문학관 전시실 내부.



당시에 출간되었던 문학 자료들.

프랑스가구 런칭

이태리가구, 소품

명화가구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7개층** ☎ 1899-0240